



五倫行實圖

韓版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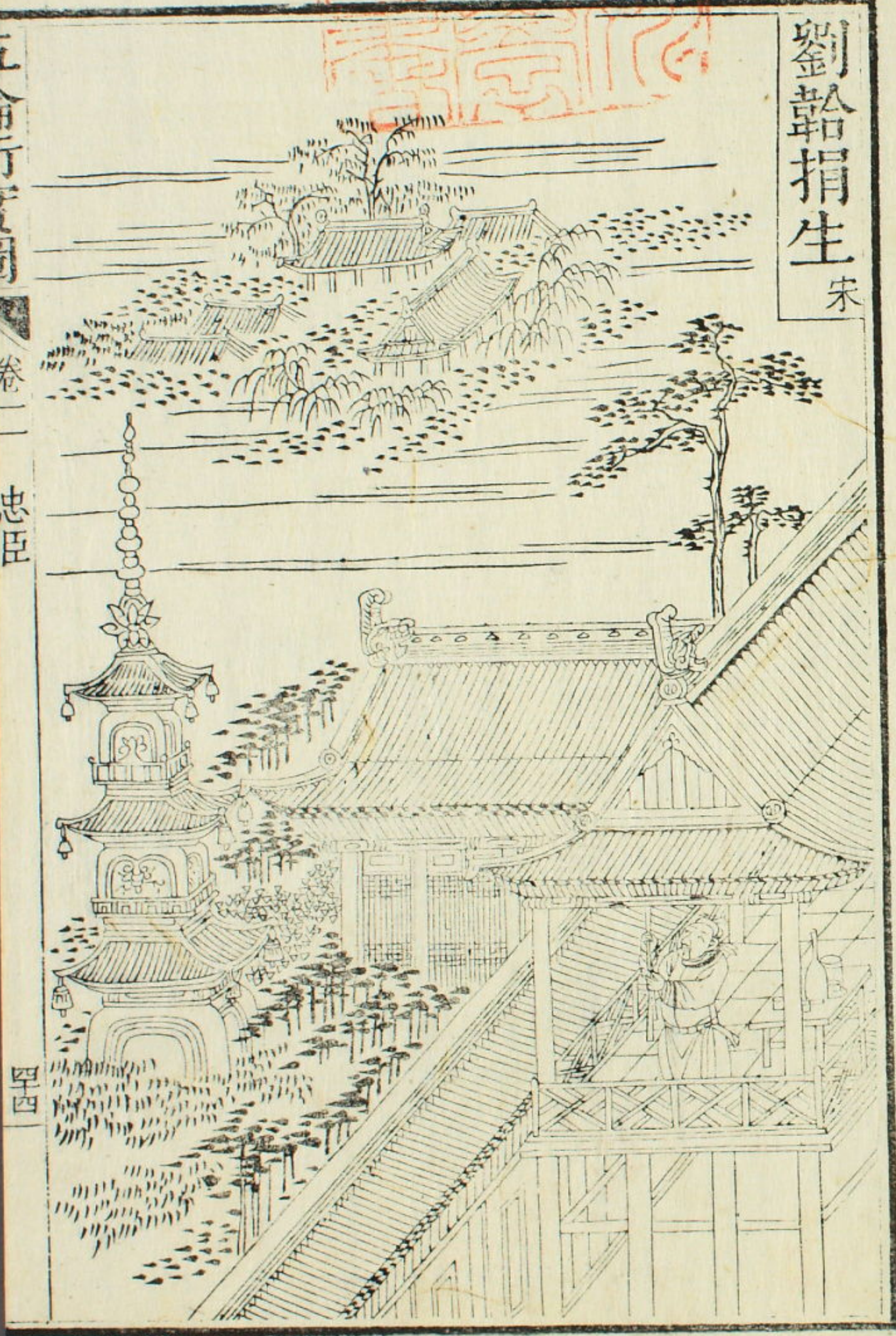
9
1439
3



1139
3



劉韜捐生
宋



五命丁

卷一

忠臣

早四

劉韜

劉韜崇安人使金營金人館之僧舍其僕射韓正謂之曰國相知君今用君矣韜曰倫生以事二姓有死不為也正曰軍中議立異姓欲以君為正代得以家屬行與其徒死不若北去取富貴韜仰天大呼曰有是乎歸書片紙曰金人不以予為有罪而以予為可用夫貞女不事二夫忠臣不事二君况主辱臣死此予所以必死也使親信持歸報其子子羽等即沐浴更衣酌卮酒而縊金人歎其忠瘞之寺西岡上遍題窓壁以識其處凡八十日乃就斂顏色如生

詩劉公奉使沒胡塵就彼浮丘已八旬顏色如生

良有以須知忠義格蒼旻 捐軀殉國是丹忱豈肯偷生事彼金賊歎忠誠埋瘞謹固知狂虜亦人心

뉴함은송나라송안사람이니금나라의소신갓
더니금나라정승이함을머물너벼슬하이고져
하거늘함이곧오디살기롤도모하여두성을섬
기문죽어도못하리로다하대또여러번부귀로
써다래거늘함이하늘을우러러크게브르고도
희에글을써곧오디널너는두지아비롤섬기디
아니하이고통신은두님을군을섬기디아니하느니

高을며님군이욕되매신해맛당이죽으리라하
 고쁘기물고차매사름으로하여곰도라가그아
 돌의게전하라하고즉시목욕하고오솔마라님
 고솔부어먹고목미여죽으니금인이그통성을
 탄식하여합의며므려연절서편언덕에못고창
 과벽의두로글을써그곳을기록하였다가팔십
 일만에다시내여넘습하니얼골이사라실적
 더라

傅察植立 宋



五倫行實圖
傅察字孟州人宣和七年爲接伴金國賀正使時金人
已渝盟察至燕山聞幹離不入寇或勸其母遽行察
曰銜命以出聞難而止若君命何遂行遇幹離不領
兵至曰汝國失信吾與師南向海上之盟不可恃也
察曰兩國講好信使往來項背相望何謂失信太子
干盟而動意何爲乎虜左右促使拜白刃如林察曰
死則死耳豈有俱人臣而輒拜者或抑摔使伏地察
愈植立衣冠顛頓終不屈幹離不怒曰爾不拜我邪
麾令去察知不免謂其下曰我死必矣我父母老素
鍾念我聞之必大戚若等得脫幸記我言以告吾親

知我死國少解其無窮之悲也衆皆泣既次燕山遂
遇害

詩傅公銜命至燕山聞敵渝盟莫肯還白刃如林
終不屈輕生就死自安閑 虜令屈拜立如山抗
節孤高不可攀臨死解親無限恨兩全忠孝古來
難

부찰은송나라망쥬사람이니금국의소신가더
니이새알리블 오랑개일
힘이라 이이의군소를니리혀드
러오노디라혹이권하여가디말라하거늘찰이
곧오디군명을받자와나오다가엇디난을듣고

그치리오호고드디여헝헝여길히셔알리불을
만나니알리불이부찰드려닐오디네나라히실
신호매내군스름니르혀오느니전일밍세는가
히밋디못호리라찰이곧오디냥국이화천호여
스신이낙역왕니호는디라네엇다호여실신호
다호느노네밍세를져브리고동병호여오니엇
딘뜨다노좌우오랑개찰드려절호라호고검극
이수풀마드니찰이곧오디죽을디언정엇디네
게절호리오오랑개찰을잠아누르고싸히업디
게호거늘찰이박은드시셔셔종시골티아닌대

알리불이노호여잡아내어가라호니찰이죽으
믈면티못호졸을알고뜨라간사름드려닐오디
내부되날을심히사랑호시니내죽으믈드르시
면반드시크게셜위호실거시니네도라가내말
숨으로알외디나라일에죽으니셜위마르쇼셔
호라호니보느재아니올니업디니므춤죽인
배되니라

五倫行實圖
邦又書襟



楊邦又吉水人建炎三年杜充駐劄建康金人大至
充率麾下降金人濟江逼城董餉使李稅知府陳邦
光皆出降金帥完顏宗弼既入城稅邦光率官屬迎
拜邦又時爲通判獨不屈以血大書衣裾曰寧作趙
氏鬼不爲他邦臣宗弼不能屈翼日遣人說邦又許
以舊官邦又以首觸柱礎流血曰世豈有不畏死而
可以利動者速殺我宗弼與稅邦光宴堂上立邦又
于庭邦又叱稅邦光曰天子以若扞城賊至不能抗
更與其宴樂尚有面目見我乎有劉團練者以幅紙
書死活二字示邦又曰欲死趣書死字邦又奮筆書

死字金人相顧動色已而宗弼再引邦又邦又不勝
憤大罵曰若女真圖中原天寧久假汝行磔汝萬段
安得汗我宗弼大怒殺之

詩金兵大至建康危杜道陳降勢不支惟有楊公
終不屈巍然壯節是男兒 刺血書襟意自真寧
為趙鬼不他臣可憐一死全忠節藉藉聲傳億萬
春

양방예는송나라길슈사름이니건염 송고종대
년호라 삼

년에금인이크게니르러건강의드러오니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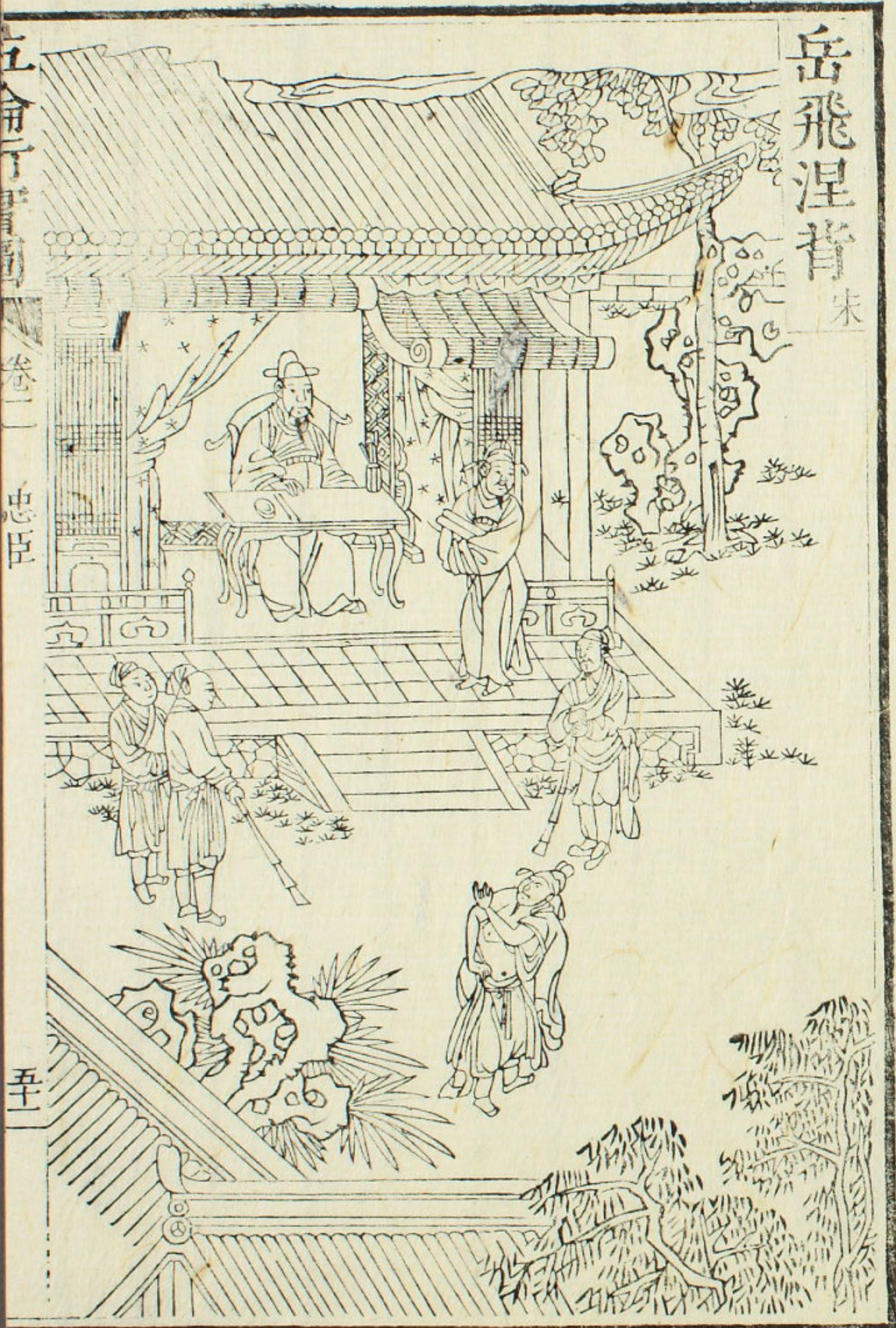
스 군양동척호
는관원이라 니절과건강디부진방광이다나가

항복하니방예이씨에통관벼슬로잇더니홀로
항복디아니하고손가락을싸미러피를내여옷
가시크게벼르오디출하리송나라귀신이될디
언텡다른나라신해되디아니하니라하니금양
쉬능히굴하게못하여이튼날사름으로하여금
방예를다래여르오디만일항복하면전벼슬을
도로하리라방예마리로쥬초를부디이저르오
디엇디죽기를두려워아니하니가히니로다
래리오날을쉴니죽이라호대금양쉬니절과진
방광으로더브러당우히잔치하고방예는뜰아

래세오니방에방광등을쉬지저곧오디련저너
 희로흥여곰도적을막으라흥옛거늘도로혀도
 적과흥가지로잔치흥고즐기니네무슴스츠로
 날을보는다금인이저근쇼희에글스들흘버외
 니흥나흔죽으리라흥는조오흥나흔살리라흥
 는저어늘방예부솔드러죽을스즈를쓰니금인
 이서로도라보며차탄흥더니이튼날또방예를
 쓰어드리거늘방예크게쉬지저곧오디하늘이
 장춧너를일만조각에죽이실거시니엇디날을
 더러일다흥대금양쉬대노흥여죽이니라

岳飛涅背

宋



岳飛相州人忠孝出於天性初從駕渡河畱妻養母河北陷沒飛遣人求訪凡十八往返乃獲迎母母喪既葬廬於墓側御札數四強之而後起飛立志慷慨以必取中原滅讎虜爲己任臨危誓衆或至流涕聞車駕所在未嘗背之而坐自結髮從戎大小百餘戰未嘗敗北高宗賜精忠旗以嘉之秦檜之議和也兀朮遣之書以爲不殺飛和議必不就檜遂決計殺飛使万俟卨何鑄等交章論劾誣飛逗遛棄山陽不守以飛父子與張憲書證其事遂捕飛及其子雲對簿飛爲裂裳示以背涅盡忠報國四字因笑曰皇天后

土可表此心獄久不決檜手書小紙付獄尋報飛死時洪皓在金蠟書馳奏金人所畏服惟飛至以父呼之或呼爺爺諸曾聞其死爲酌酒相賀云

詩奸兇誤國欲和親誓取中原有幾人舉義復讎爲己任岳王忠孝出天真 盡忠報國出丹誠涅背還應字字明愛養軍兵嚴紀律古今誰得更齊名

악비논송나라상주사람이니런성이통효하여
오랑캐난에고종황테를되시고남경으로피란
흐시안히를집에두어노모를봉양하라하고갓

더니하부싸히다오랑개게함물흐디라비사람
을보내여노모를츠즐시열여덟번왕너흐여계
요마자왓다가인흐여모상을만나무덤것히녀
막흐고잇더니황테어찰로여러번부르시니비
개연히니러나밍세코오랑개를떨흐고등원을
흥복흐려흐여등에진통보국네글즈를삭이고
빠흠마다이괴여향흔바에덕흐리업논디라
련저아름다이너기사괴우히정통이라두즈를
크개버주시니오랑개악비의괴를보면다드라
나더라이쇄에승상진회오랑개와화친흐의논

을쥬장흐시오랑개진회의게만이통흐여악
비를죽여야화친이되리라흐대진회악비죽여
기름도모흐여덕간으로흐여곰상소흐여비를
무함흐고부즈를다잡아오니비오슬버서등에
삭인글즈를뵈며우서곧오더련디이름음을아
르시리라흐니진회거죽도셔를민드라옥에가
도앗다가죽이니련하사람이아니슬허흐리업
고오랑개는서로하레흐더라



尹穀潭州人德祐己亥差知衡州待次家居潭被元
 兵城將陷知事不可為乃為二子行冠禮人曰今何
 時行此迂關事穀曰正欲令兒曹冠帶見先人於地
 下耳既畢禮具衣冠望闕再拜謂其弟岳秀曰可急
 去不可使尹氏無後吾受國厚恩義當死岳秀曰兄
 既死弟將安往願俱死城陷自火其廬舉家赴池死
 詩元兵南下肆頑兇力竭無由脫賊鋒為子猶能
 行冠禮平生義氣自從容 回頭北望拜君門自
 叙平生受厚恩兄弟爭相投水死一家忠義動乾
 坤

윤곡은 송나라 담주사람이니 덕우 송 효공 때 이년 대년 호라에 형주 원을 흥여미처도 임 못 흥고 집에 잇더니 원나라 군사 크게 드러와 담주를 위박니 곡이 성을 보전티 못 할 줄을 알고 그 두 아들의 관례를 흥흥니 사람이 닐오디 이엇더 흥새 완디 이련오 할흥일을 흥흥논다 곡이 곧 오디 우리 죽게 되여 시니 아히들 로 흥여곰 관디로 디하의 가 선인 귀 뵈고져 흥노라 흥고 관례 못 처매의 관을 정히 흥고 대궐을 향 흥여지비 흥고 그 아으 악슈 드러 닐너 곧 오디 너는 급히 드러나 문호를 보전 흥라

나는 나라히 은혜를 님어 시니의 맛당이 죽으리 라 흥대 악취 곧 오디 형이 죽으면 내어 디로 가리 오원 권대 웃티 죽으리 라 흥터니 성이 함몰 흥매 스스로 그 집을 불 지르고 일문이다 모시 싸져 죽 으니라

五倫行實圖
天祥不屈



文天祥吉水人德祐初元兵三道大入詔天下勤王
天祥捧詔泣為發郡中豪傑以烏合萬人赴義或謂
曰子是行何異驅羊而搏虎天祥曰吾亦知其然也
第國家養士三百年一朝有急無一人入關者吾深
恨此故不自量力而以身殉之五坡嶺之潰天祥既
被執吞腦子不死至崖山元帥張弘範令以書招張
世傑天祥曰我不能扞父母乃教人叛父母乎弘範
曰國亡矣殺身為忠誰復書之天祥曰商非不亡夷
齊不食周粟人臣各盡其心何論書不弘範改容送
燕不食八日不死丞相孛羅問曰汝立二王做得甚

事天祥曰立君以存宗廟存一日則盡臣子一日之責人臣事君如子事父母父母有疾雖甚不可為豈有不下藥之理有死而已何必多言繫獄月餘元主為召入問曰汝何願天祥曰某受宋恩為宰相無事二姓理願賜一死足矣至元壬午賜死臨刑殊從容謂吏卒曰吾今日事已畢南向再拜乃就死數日其妻歐陽氏收其屍面如生檢衣帶中有贊曰孔曰成仁孟曰取義惟其義盡所以仁至讀聖賢書所學何事而今而後庶幾無愧

詩國亡家破見忠臣仰藥從容欲殺身重義輕生

終不屈高名千載獨離倫 繫獄艱辛至月餘一身忠節不渝初衣中有贊辭深切無愧平生所學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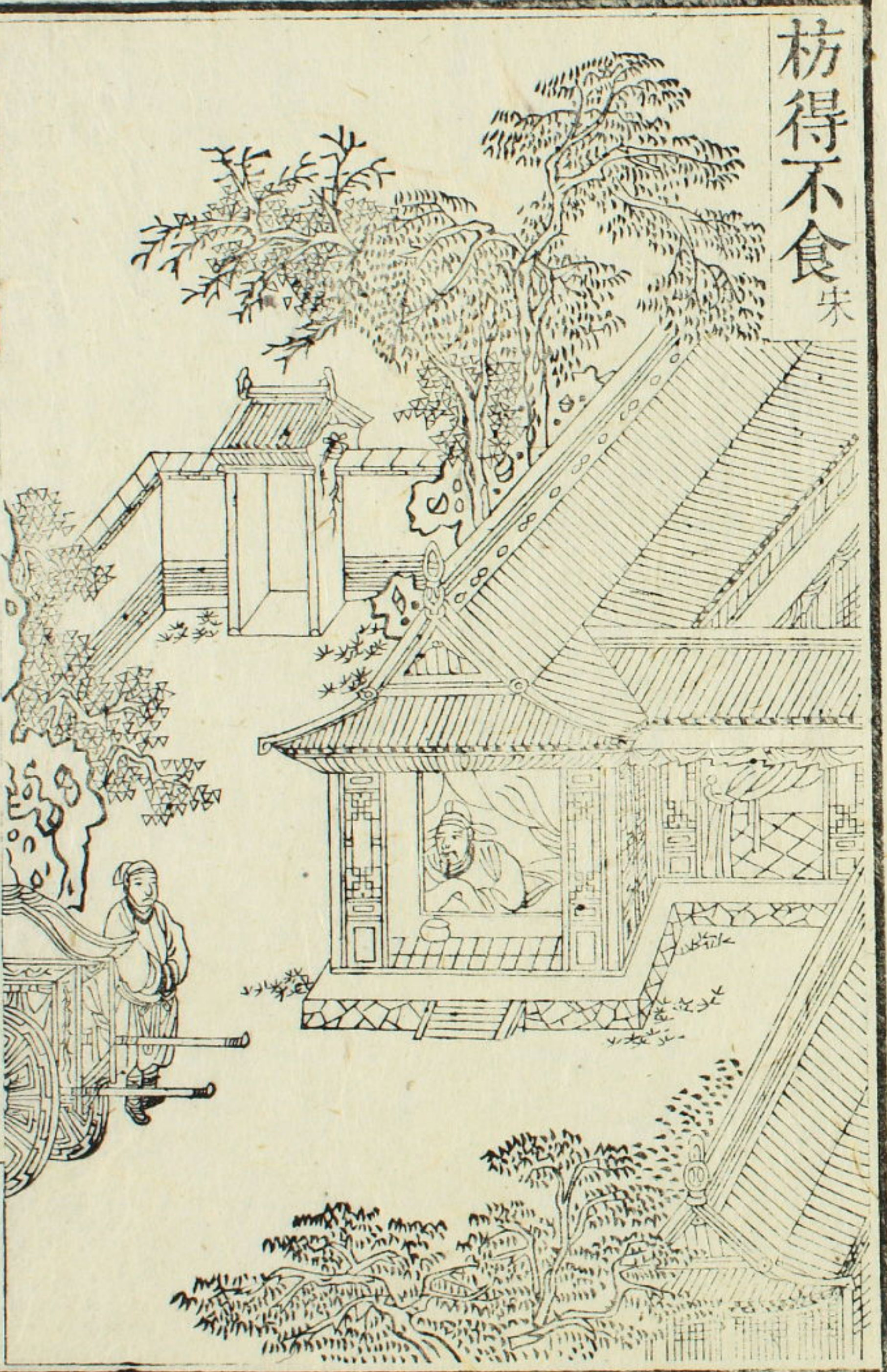
문련상은송나라길슈사람이니원나라군시세길로크게려드러오니련지도셔하여련하에구원병을브른대련상이도셔를바다눈물을싼리고의병을거두어힝힝시혹이즌오디이엇디양을모라범을틈과다르리오련상이즌오디내또흔모로논줄이아니로디국가에급호미잇거늘흔사람도응호리업스니내갑히흔호는디라이

리므로 힘을 헤아리디 아니하고 죽기로 나라를
감흐리라 하더니 련상이 오랑개게 잡히여 독약
을 삼키되 죽디 아니하느니라 이 새장세길과 육
슈뵈련조를 되셔 비를 득고 애산바다가 온대로
드라나니 원나라 땅 슈장홍범이 련상을 핏박하
여 글을 민드라 장세길을 부르라 하거늘 련상이
곧 오디 내능히 님군을 호위티 못하교 차마 남을
권하 여 님군을 비반하 라 하랴 하대 원나라 땅 슈
곧 오디 네 나라히 망하 여 시니 네 비록 몸을 죽여
통신이 되고져 하나 후세에 뉘 알니 오련상이 곧

오디은 나라히 망하 여 시되 백이 숙제 주나라 곡
식을 먹디 아니하 니 인신이 그 마음을 극진이 흘
려 량이라 었디 후세에 알며 모로기물의 논하 리
오하 고 팔일을 곧 되 죽디 아니하 느니라 원나
라 정승 불래 무려 곧 오디 네 나라히 망하 게 되새
에 두 님군을 세오 니 무삼일을 하 였느다 련상이
곧 오디 님군을 세워 흘리 라 도종묘를 보전하 미
신하의 책망이라 님군 섬기미 부모 섬김 마 트니
부외병이 이 시면 비록 죽게 되여 신 들 었 디 약을
쓰디 아니하 리 오하 고 종시 굴을 쓰 디 업스 니 옥

에가도앗다가인하여죽인배되니죽기틀넘음
 여남향저비하고종용히죽으니라그안히구양
 시죽음을거두니얼골이사랏는듯하고옷가온
 대셔글을어드니그글에존오디몸을죽여인을
 널오মন공주의말슴이오살기틀넘리고의틀취
 흥은밍주의말슴이라성현의글을읽으매빅흔
 배무슴일인고이젠후의야거의붓그러오미업
 도다하였더라

枋得不食 宋



王倫行實圖
謝枋得信州人北軍攻饒州拒戰于安仁敗績變姓名入唐石山轉茶坂寓逆旅中日麻衣躡屨東向而哭人不識之以爲病狂也元軍至信州鏤枋跟捕執妻李氏拘揚州枋得入蒼山寺處崎嶇山谷會大赦乃出時妻已斃寓建陽之驛橋福建行省叅政魏天祐逼以北行枋得不肯以死自誓天祐與言坐而不對或嫚言無禮天祐讓曰封疆之臣當死封疆安仁之敗何不死枋得曰程嬰杵臼一死於前一死於後王莽篡漢十四年龔勝乃死死有重於泰山輕於鴻毛蓋棺事定叅政豈足以知此卽不食二十餘日不

死至燕京問謝太后櫬所及瀛國所在再拜慟哭遷憫忠寺見壁間曹娥碑泣曰小女猶爾吾不如若哉
雷夢炎使人持藥雜米飲以進枋得怒曰吾欲死汝乃欲生耶擲之地終不食死

詩摧鋒陷敵志無成遁跡山林變姓名數月茹蔬
終死節凜然千載樹風聲 元兵跌宕力難當戰
敗流離寓建陽羞事二君輕一死名留竹帛更輝
光

야방득은송나라신유사름이니송이망할때에
원나라군시요유사름티거늘야방득이막아싸호

다가 패하여 드라나 성명을 못치고 산등에 드러
가 뵈옵과 집신으로 날마다 동향하여 통곡하니
사람이 다 광인이라 하더니 원인이 두로 방을 부
터근 포홀시방등의 쳐니 시를 잡아 가도니 방등
이 창산스라 하는 절에 숨었더니 원나라 참정벼
슬하는 위련위방등을 잡아 핏박하여 제나라호
로드러가려 하거늘 방등이 죽기로 벼가 다니
훈대련위존오디 내려 홀작시 면었다 볼셔 죽
디 아니하였노다 방등이 존오디 죽으니 태산의
셔 등홀적도 잇고 터럭의셔가 비여 올적도 잇는

니 네엇디 알리오 드디여 스무 날을 밤을 먹디 아
니 하디 죽디 아니 하더니 연경에 잡히여 가샤 태
후빈소와 효공황테 잡히여 가겨 신디를 무려 통
곡지비하고 민통스란 절에 머므더니 비람벽스
이에 조아비라 하는 글을 보고 우러 존오디 조아
는 어린녀제로 디오 히려 아비를 위하여 죽어 시
니 내엇지 더만 못하리오 하고 침니 굴며 죽으
니라



完顏陳和尚金宗室為忠孝軍提控正大五年蒙古
 兵入大昌原平章合達問誰可為前鋒陳和尚出應
 命沐浴更衣若將就木然者擐甲上馬不反顧以四
 百騎破八千衆御軍有方坐作進退皆中程式所過
 州縣秋毫無犯每戰則先登陷陣疾若風雨諸軍倚
 以為重三峯之敗走均州城破兵入趨避隱處殺掠
 稍定乃出自言曰我金大將陳和尚也大昌原衛州
 倒回谷之勝皆我也我死亂軍中人將謂我負國家
 今日明白死天下必有知我者時欲其降斫足脛折
 之劃口吻至耳嘔血而呼至死不屈蒙古將義之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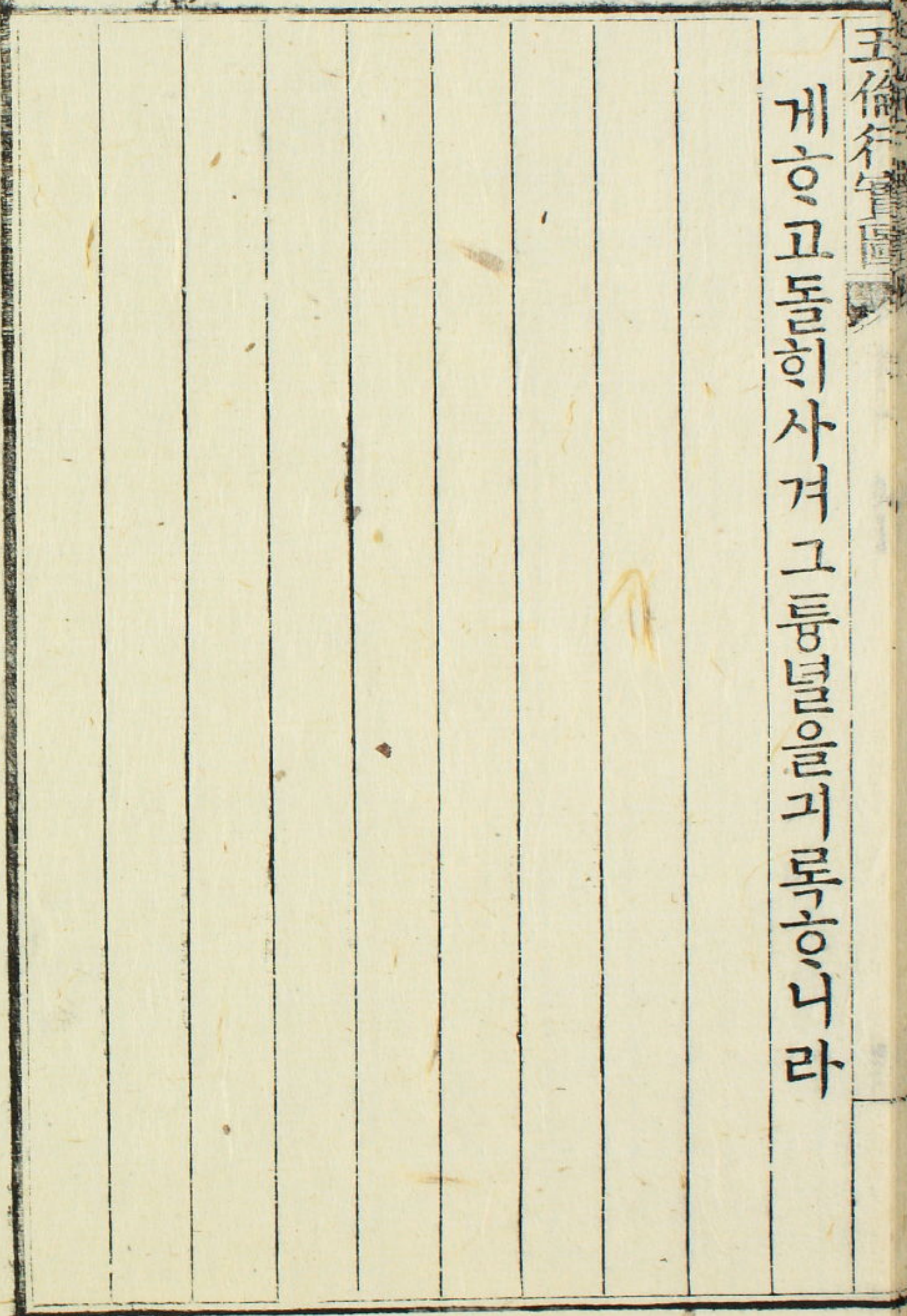
以馬潼曰好男子年四十一詔贈鎮南軍節度使塑像褒忠廟勒石紀其忠烈

詩元兵闌入大昌原募應前鋒將虎賁四百能摧八千衆先登奮勇似雷奔 難將抔土障黃流斫劃要降罵不休天下果知明白死褒忠紀石表山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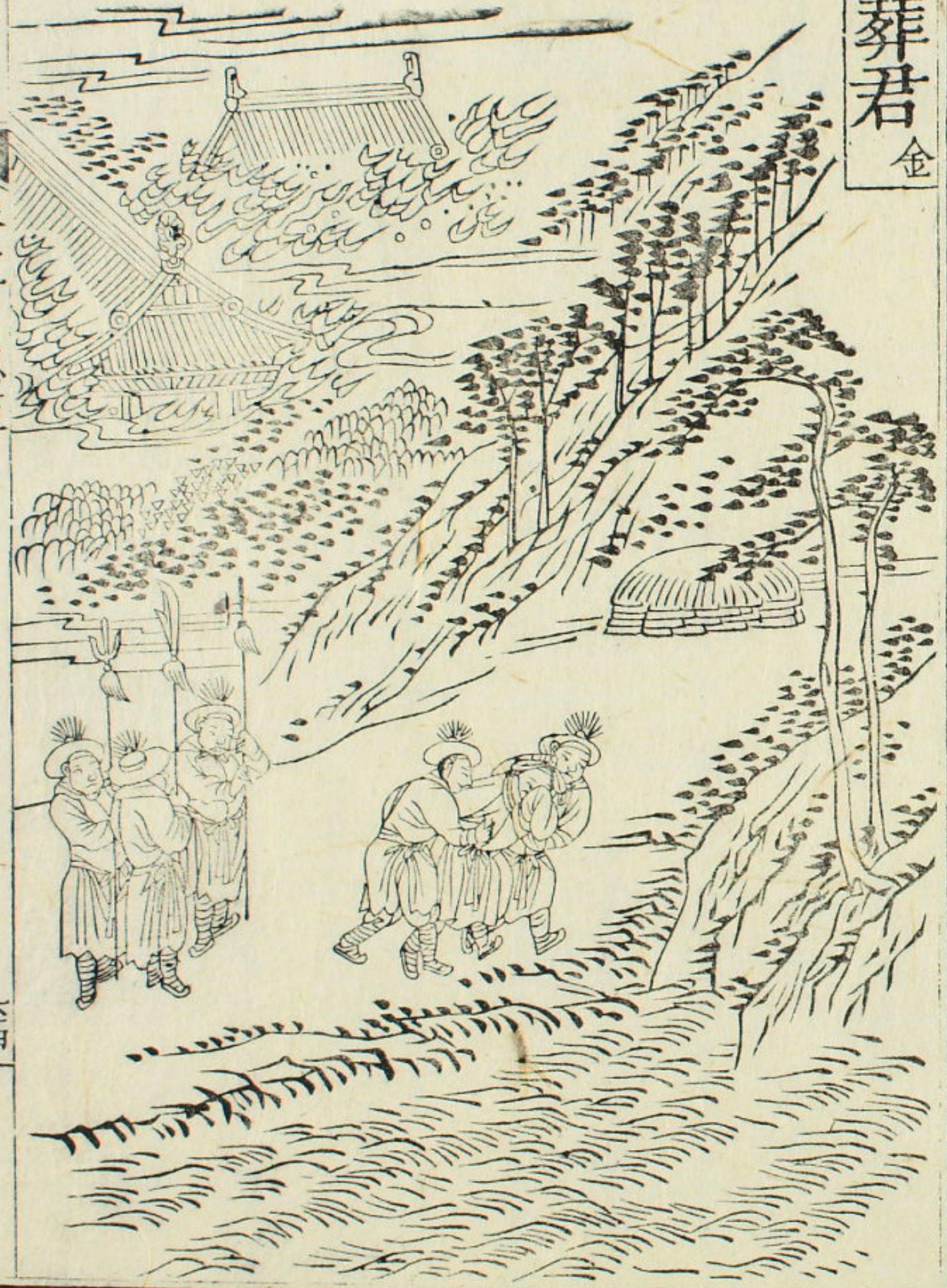
진화상은금나라량쉬라몽고의군사크게드러오니화상이즈원하여선봉이되어도적을려싸흐마다이괴더니삼봉싸히서패하여잠간숨엇다가도적이주김과노략질을쳐기그친후에나

와닐리곧오디나논금나라대량진화상이라이즈러온군통의셔죽으면사름이아디못하고나라홀져브리다홀거시니오늘날명백히죽어련하로하여곰알게하리라훈대도적이잡아항복바드려하거늘화상이항복디아니훈대발목을버히고입을씩여귀사디니르니피를땀으며크게부지저종시굴티아니하고죽거늘도적이차탄하여곧오디호남즈라하더라이세에나히스십일세라금나라히그통의를아름다이너겨진남군절도스벼슬을투증하고얼골을그러제하

개호고돌히사겨그릉닐을기물하니라



絳山葬君 金



完顏絳山哀宗之奉御也蔡城破哀宗傳位承麟卽
自縊于幽蘭軒點檢內族斜烈將從死遺言絳山使
焚幽蘭軒火方熾子城破大兵突入近侍左右皆走
避獨絳山畱不去爲兵所執問曰汝爲誰絳山曰奉
御絳山也兵曰衆皆走而獨後何也曰吾君終于是
吾俟火滅灰寒收瘞其骨耳兵笑曰若狂者邪汝命
且不能保能瘞而君邪絳山曰人各事其君吾君有
天下十餘年功業不終身死社稷忍使暴露遺骸與
士卒等邪吾果瘞吾君後雖寸斬不恨矣兵以告其
帥奔蓋曰此奇男子也許之絳山乃掇其餘燼裹以

弊衾瘞于汝水之旁再拜號哭將赴汝水死軍士救
之得免後不知所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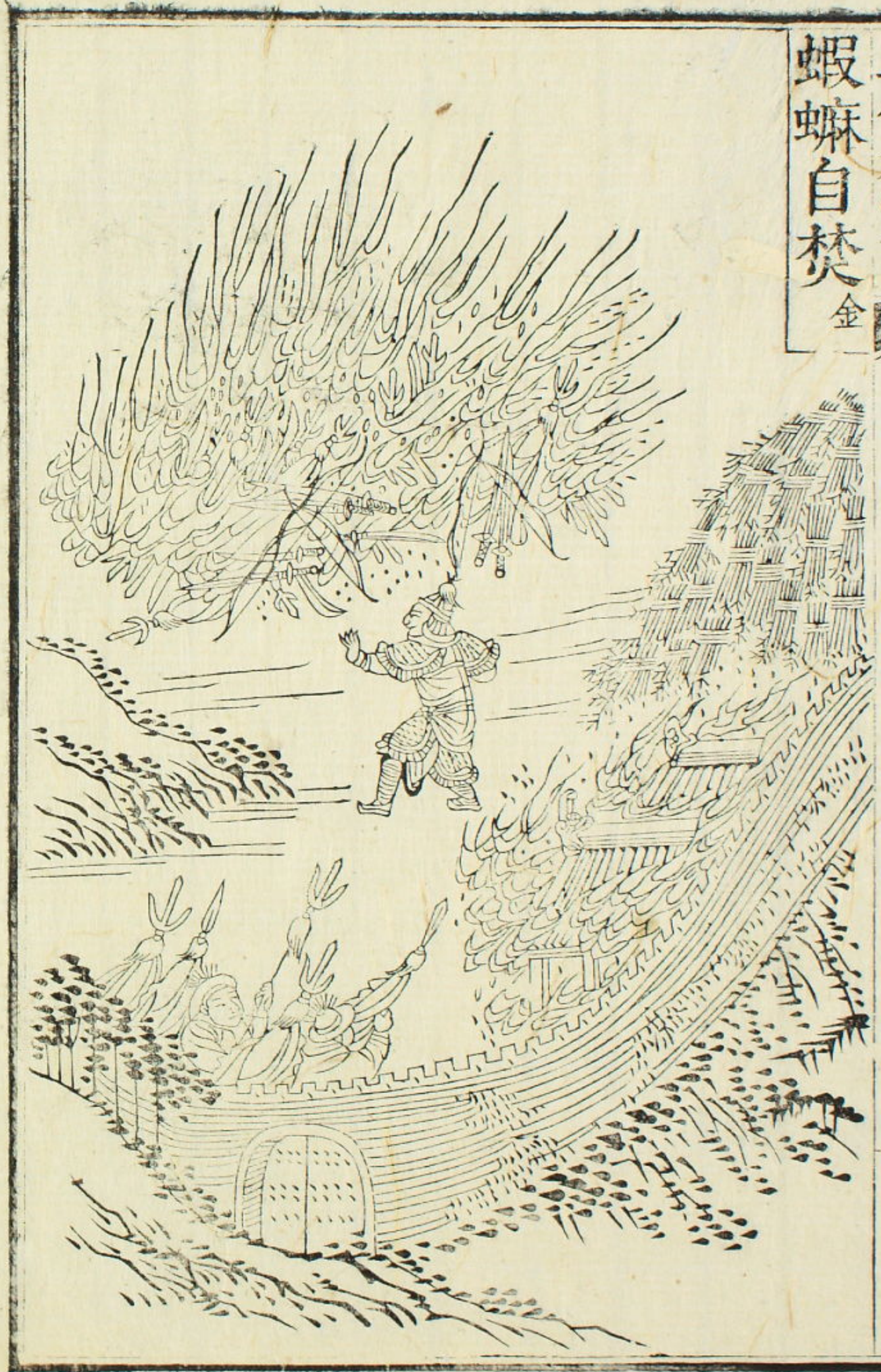
詩國破君終衆散亡挺身胡奈獨彷徨遺骸不忍
哀原野掇拾慙慙瘞汝旁 左右蒼黃共避擒獨
畱收骨意方深兵人固識奇男子終使安全得盡
心

강산은금나라의종새봉어벼슬하느사름이라
이종이원병의게핍박하여유란헌이라하느집
에서목미여죽으니털검니족벼슬하샤렬이샤
라죽을시강산으로하여곰집의블을노터니원

나라군사돌입흥거늘좌위다드라나되강산이
홀로머물고가디아니흥거늘도적이잡아무려
졸오디놈이다드라나거늘네엇디홀로잇는다
강산이졸오디내남군이여괴셔죽으시니내블
새디기룰기드려남군의히골을거두어무드려
흥노라흥내원병이우서졸오디내장춧죽게되
엇거든어느결을에네남군의히골을무드리오
강산이졸오디우리남군이런하를두션디삼여
년에공업을못디못흥시키고몸이샤적에죽으시
니차마히골을남려죽은군사와마티흥리오내

만일남군의히골을무든후면비록촌촌이버혀
죽어도흥이업소리라원병이괴특이너겨허락
흥니이에블드고남은새를거두어니블에빠못
고두번질흥고통곡흥고몰의싸디려흥거늘군
사구흥여내엇디니후의간곳을모로니라

王倫行實圖
蝦蟆自焚金



郭蝦蟆會州人爲洮河元帥金亡西州無不降潰獨
蝦蟆堅守孤城元兵攻之蝦蟆度不能支集州中所
有金銀銅鐵雜鑄爲礮以擊攻者殺牛馬以食戰士
又自焚廬舍積聚曰無至資兵日與血戰軍士死傷
者衆乃命積薪於州廨火既熾率將士於火前持滿
以待城破兵填委以入廕戰既久士卒有弓盡矢絕
者挺身入火中蝦蟆獨上大草積以門扉自蔽發二
三百矢無不中者矢盡投弓劔于火自焚城中無一
人肯降者蝦蟆死時年四十五土人爲立祠
詩可憐金末洮河帥獨守孤城力不支餉士仍令

焚積聚終焉血戰死爲期 州廨燔薪勢已傾奮
身鏖戰共輕生闔城自斃無遺孑千載流傳不朽
名

곽하마는금나라회유사람이니벼슬하여도하
원슈되었더니금나라히망홀새에원나라군사
크게드러오니셔쥬모든고을이항복디아니하
리업스되하매홀로외로운성을구디덕희였더
니원병이급히티니하매힘을다하여싸화냥식
이진호매몸과쇼를다잡아군스물먹이고섭흔
집알피싸하블을노코군스물거느리고블알피

셔활을드리여도적을기드리니적병이무수이
드러오논디라죽쳐싸홀시공시진호는군사드
토와블의드라들고하매홀로플싸흔디올라문
밖으로몸을마리오고살수삼백을쏘아도적을
무수이죽이고살이진호니활과칼을블가온대
더디고드디어스스로블에드러죽으니성등이
흔사람도항복호는재업더라하매죽을새에나
히스십오세라그싸사람이스당세위제하니라

普顏全忠

元



普顏不花蒙古氏官叅知政事至正十八年詔與侍
 御史李國鳳經略江南至建寧陳友諒遣鄧克明來
 寇國鳳遁去普顏不花曰我承制來此去將何之誓
 與此城同存亡耳拒戰六十四日大敗賊衆明年召
 還授山東宣慰使守益都 大明兵壓境普顏不花
 捍城力戰城陷平章保保出降普顏不花還告其母
 曰兒不能兩全忠孝幸有二弟當終養拜母趨官舍
 坐堂上主將素聞其賢召之再三不往既而面縛之
 普顏不花曰我元朝進士官至極品事已至此何以
 生爲竟不屈而死其妻阿魯真抱其子投舍北井其

五倫行實圖

卷一 忠臣

堯

女及妾孫女皆隨溺二弟之妻各抱幼子及婢妾溺
舍南井死

詩親承詔命撫南方敢愛微軀棄土疆國鳳何人
潛遁去誓將城堡共存亡 忠孝誠難兩得全居
官効死職當然可憐妻子皆投井節義家聲萬古
傳

보안불화논원나라사람이니참지정스벼슬하
여강남에순행할시건녕싸히니르러는도적진
우량의당슈와빠화여러번파하고익도싸흔디
희엇더니 대명군사와티니불해성을웅거하

여힘써싸호더니성이함몰하매당승보보논나
가항복하거늘불해그어미드려고하여온오디
내통효를냥전티못하게되엇논디라아으들이
이시니맛당이모친을봉양하리이다하고하직
하교가관가집의안곳더니 대명당슈불화의
어딘일흥을듯고두세번브르다가디아니하대
군스를보내여잡아가니불해온오디나는원나
라신하로벼슬이놓חת는디라일이이미이에니
르러시니사라무엇하리오하고므춤내골티아
니하고죽으니그안히아로진이또하아들을안

고우물에 싸질시설과첩과손녀와두아의안히
각각어린아히를안고종들사디다싸라싸져죽
으니라

堤上忠烈
新羅



朴堤上新羅始祖赫居世之後仕爲歆良州干先是實聖王遣奈勿王子未斯欣質倭又遣未斯欣兄卜好質高句麗訥祇王立思得辯士往迎之堤上請行至句麗說王同歸王喜曰念二弟如左右臂今只得一臂奈何堤上拜辭不入家至倭國給言王殺我父兄故逃來倭王信之堤上與未斯欣乘舟若游玩者倭人不疑堤上勸未斯欣潛還未斯欣欲偕歸堤上曰俱去恐謀不成未斯欣行既遠倭王囚堤上問曰何竊遣王子對曰臣是雞林臣欲成吾君之志耳倭王怒曰言雞林臣必具五刑命剝脚下皮刈蕪葭使

趨其上問曰何國臣曰雞林臣又使立熱鐵上問何國臣曰雞林臣倭王知不屈燒殺之妻率三娘上鷄述嶺望倭國哭死

詩訥祇初立念天倫辯士旁求得此人質弟歸來全二臂新羅千載一忠臣 勸欣還國滯扶桑身被淫刑最可傷哭望東溟妻又死至今忠烈史增光

박테상은신라시조혁거세후손이니신라왕의 두아이흐나흐왜국에볼모잡히이고흐나흐고 구려에볼모잡혀갓더니왕이심히보고저혀

변수를어더가마자오라홀서테상이즈원하여
고구려에가그왕을다래여볼모를노케하고또
왜국에가왜왕을속이고왕의아이를만이비
를티와보벌시닐너온오디내함씩가면씩일우
디못하리라하고머물너잇더니왜왕이알고테
상을가도고무려온오디네엇디왕테를만이
보내엇는다테상이온오디나는신라신해라우
리님군이왕테를싱각하여보고져하시매내님
군의뜻을일오미로라왜왕이노하여온오디네
감히신라신해로라하면반드시죽이리라하고

테상의발바당가족을벗기고큰뱃홀휘여늘나
게하고테상을그우흐로신을며무려온오디네
뉘신한다테상이온오디신라신해로라또외를
불의달화그우히세우고무르디네뉘신한다테
상이또온오디신라신해로라왜왕이쿨티아니
홀줄을알고불에솔와죽이니그안히테상의죽
음을듣고놈은녕의올라왜국을버라며울고죽
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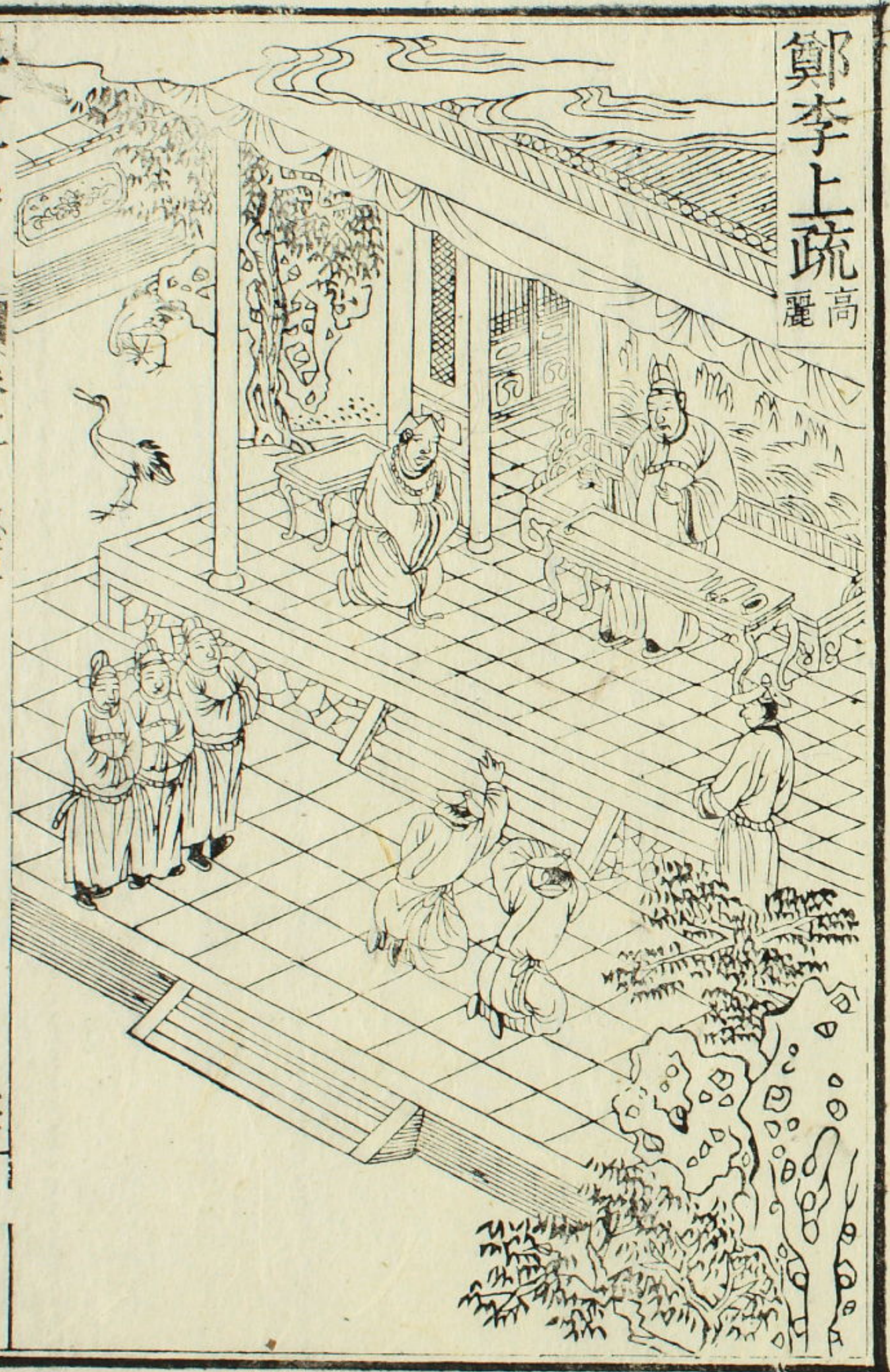
不寧子不知鄉邑族姓新羅善德王元年百濟將軍
 義直率兵分攻甘勿桐岑二城王遣金庾信率兵拒
 之苦戰氣竭庾信顧謂不寧子曰事急矣子能奮激
 出奇以勵衆心乎不寧子拜曰當以死報出謂奴合
 節曰吾爲國家死之吾子舉真年雖幼有壯志必欲
 俱死若父子并命則家人疇依汝其與舉真好收吾
 骨歸以慰其母心卽鞭馬橫槊突陳格殺數人而死
 舉真望之欲赴合節曰大人令合節奉阿郎還家以
 慰夫人今子負父命棄母慈可乎執馬轡不放舉真
 曰見父之死而苟存豈孝子卽以劍擊折合節臂奔

入敵中戰死合節曰所天崩矣不死何為亦交鋒而死軍士爭進斬首三千餘級王聞之涕淚禮葬厚賜詩二城受敵勢將危倉卒將軍力莫支奮激出奇能勵眾一身忠義永無隳 囑奴收骨慰家人突陳橫戈不顧身合節舉真相繼死宜加恩禮獎忠臣

비녕은신라사람이니당슈김유신을조차빅테와빠화군서귀운이진하니김유신이비녕은드러날오디네능히귀특흔씨를내여군심을격동케하랴비녕지존오디맛당이죽기로감호리

라하고그종합절드러날오디내나라흔위하여죽을거시내아들거진이비록어리나장훈이잇노디라반드시훈가지로죽으려하리니만일부지다죽으면집사람이늘을의지하리오네거진을드라고내씨를거두어도라가그어미모음을위로하게하랴하고즉시창을빚기고몸을채쳐적진을충돌하여두어사람을죽이고인하여빠화죽으니거진이브라보고적진의다라가죽으려하거늘합절이존오디대인이날로하여곰낭군을보전하여도라가부인을위로하랴

시니엇디아비명을저녁리고어미의죽이를뵈츠
 려흐노뇨흐고물곳비를잡고노티아니흐니거
 진이곧오디죽식이아비죽으믈보고구차히살
 면엇디효저리오흐고칼로합절의풀을려버히
 고적진으로드라가빠화죽으니합절이곧오디
 쥬인이죽은디라내엇디살리오흐고또빠화죽
 으니군사다도아나가크게이권디라신라왕
 이듯고눈물을흘리고네로장수흐고그집에저
 물을만히주니라



鄭李上疏 高麗

鄭樞清州人李存吾慶州人恭愍王方寵幸昫樞存吾上疏曰昫專國政有無君心常騎馬出入宮門與殿下並據胡床雖崔沆林衍亦未若此王怒召樞等面責時昫與王對床存吾目昫叱之昫惶駭不覺下床王愈怒命李春富李穡鞠誘者樞曰見上委政非人將危社稷不得默默豈待人誘昫陰使人誘存吾曰若引慶復興元松壽則可免存吾叱曰身為諫官第論國賊安有為人所指昫必欲殺之穡謂春富曰祖宗以來未嘗殺諫臣若殺之領相之名恐由是而不美春富白昫得減死謫外存吾以憂成疾疾革使

扶起曰昫尚熾乎昫亡吾乃亡反席未安而卒

詩並據胡床敢抗衡專權擅政國將傾倘非二子

忠誠激冒死何人伏閭爭 王心蠱惑信姦回可

鑑玄陵養禍胎怒目一言真斧鉞賊昫從此膽先

摧

噎齋는 고려청유사름이오니 존오는 경유사름

이니고려공민왕이 중놈신문을 사랑하여 정스

를어즈러이니 명유니 존오두사름이상소하여

문의 죄상을니룬디왕이대노하여두사름을불

러쑤지졸시이쇄에문이왕을디하여상우히안

뜻는다라 존외 눈을 브릅쓰고 둔을 썩지 쫓니 둔
이 황망히 상에 누린디 왕이 터옥 노하여 두 사람을
을 잡아져 주어 무르디 다투라 셔너를 무르쳐 상소
하라 하더뇨 디하여 곧 오디 왕이 못살놈의 계정
수를 맞춰 나라히 망하게 되여 시매 잠잠타 못하
여 하미라 었디 놈의 무르치 불바다 시리오훈대
둔이 무만이 사람을 이로 하여 곰존오를 다래여 제
개의 온 사람을 다히라 하거늘 존외 사지저 곧 오
디 몸이 간관이 되여 나라도 적을 논하하여 시너
엇디 놈을 다히리오훈대 둔이 죽이고져 하거늘

니 식이 위하여 쥬션하여 귀향 보내엿더니 존외
병드러 죽을새 에 붓들녀 내려안자 곧 오디 신둔
이 그저사 랫나야 이 놈이 죽어야 내 죽으리라 하
고 도로 누어 죽시 죽으니라



鄭夢周迎日人為高麗門下侍中初崔瑩勸辛禡興
 師攻遼我太祖舉義回軍復立王氏趙浚鄭道傳
 南閭等知天命人心所在欲推戴太祖洪武壬申
 三月太祖墮馬夢周忌諱道傳閭等同心輔翼令
 臺諫劾流之遣金龜聯李蟠就貶所將殺之義安大
 君和興安君李濟等白太祖曰勢已急矣將若之
 何太祖曰死生有命但當順受而已和濟退謂麾
 下士趙英珪曰李氏之有功王室人皆知之今為
 人所陷後世誰知麾下士其無効力者乎英珪曰敢
 不從命英珪等要於路擊殺夢周太祖大怒因病

篤至不能言 太宗即位以專心所事不貳其操贈

諡文忠

詩麗季衰微泰運升羣賢攀附摠飛騰從容就死
鳥川子啓我朝鮮節義興 忠義由來不可湮平
時砥勵且無人疾風勁草尤難見須識高麗一个
臣

형몽주는 영일사름이니 고려 망홀새 정승이라
태조대 왕피련명과 인심이 다 도라오니 도준과
형도전과 남은 등이 태조를 진심하여 도으니
형몽주 크게 근심하여 덕간으로 하여금 도준 형

도전 남은 등을 논박하여 귀향 보내게 할 때의 안
대군화와 홍안군 니테 등이 도영규 드러 낼러 곧
오덕 니시왕실에 큰 공이 잇거늘 제위티는
게 되어 시니 너희 등이 이새를 당하여 힘을 쓰디
아니 할러 하니 나영귀드디여 길에 즐릿다가 몽
주를 터 죽이니 태조드르시고 크게 노하여 사병
들기에 니르러 거시더니 그 후에 태종대 왕이
즉위하사 몽주의 왕시의 단통함을 아람다 이너
기사 사호를 주어 문통공이라 하시니라

吉再抗節

高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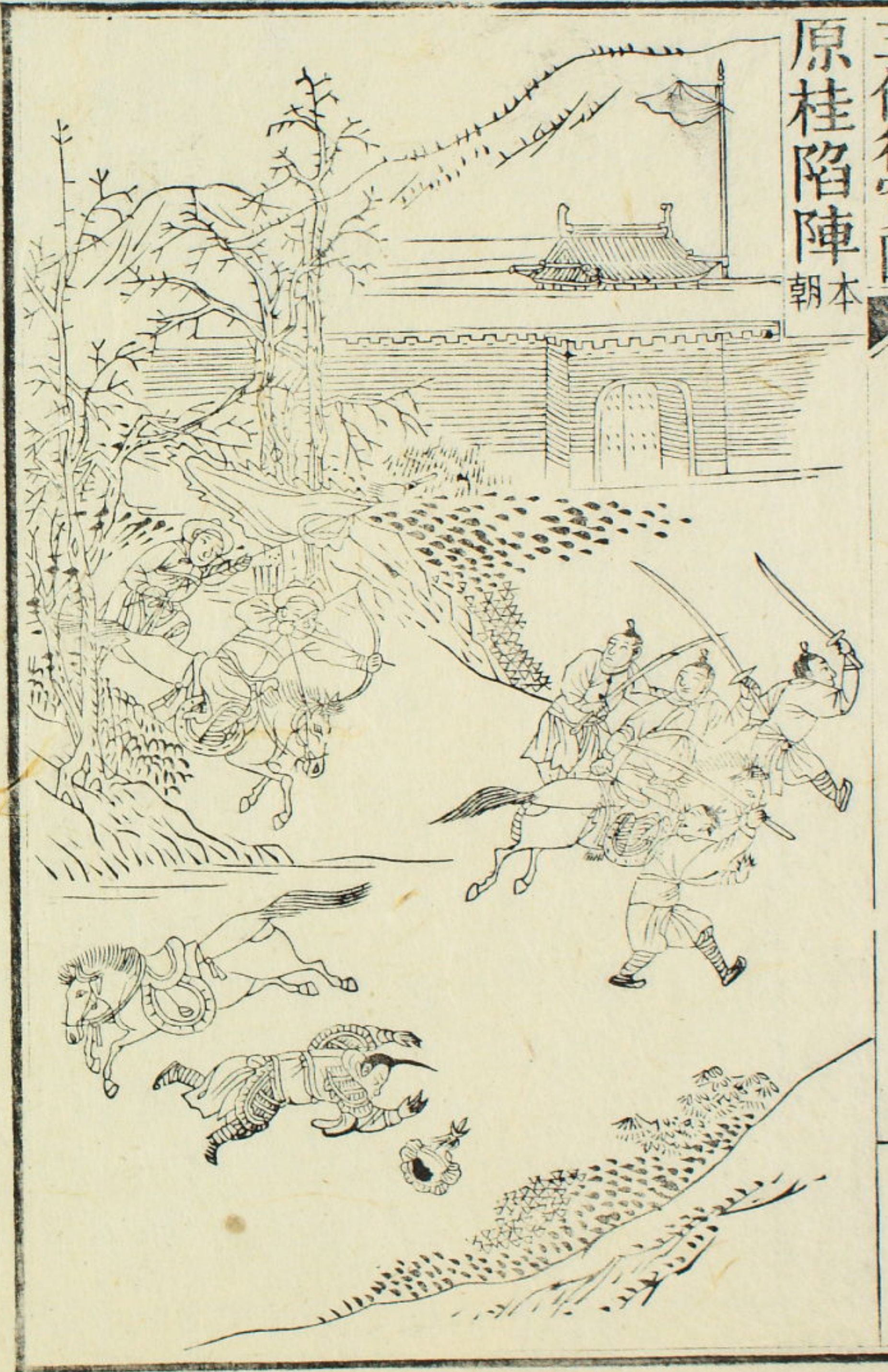
吉再海平人仕高麗洪武己巳棄官歸家至庚辰
 太宗在東宮召之再至啓于 定宗授奉常博士再
 啓 東宮辭職 太宗教曰子之所言實關綱常但
 召之者吾而官之者 殿下也宜辭於 殿下再乃
 上書曰再擢第辛朝爲門下注書臣無二主乞放歸
 田里終養老母以遂臣不事二姓之志明日 定宗
 御經筵問知經筵事權近日吉再抗節不仕未審古
 人何以處之近對曰嚴光不屈光武從之再若求去
 不如使之自盡其心之爲愈也乃許歸仍復其家
 世宗卽位承 太宗命官其子八年丙午贈左司諫

大夫

詩崧山王氣已成灰真主龍興泰運開尙戀舊君
全一節飄然歸臥子陵臺 亭亭高節凜秋霜直
欲追蹤餓首陽聖代褒崇彰義烈三韓億載樹綱
常

길지는고려히평사름이니고려말에버슬하다
가흥무 명대조대 년호라 기사에버슬을브리고집의도라
갓터니아 태종대왕이동궁의겨실새에브리
신대지오거늘 대도에엇저와버슬하이시니
저밭디아니하고글을올려올오디신하느두님

군이업느니저를고하보내어늬은어미를봉양
하게하쇼셔 텅종대왕이권근드러무러골
샤디길지절을직히여버슬을아니하니엇디쳐
티하리오근이디하여올오디한새엄즈름이버
슬아니하거늘광무황테그뜻을조차노하보내
시니이제길지가기를구하거든제口음대로하
게하쇼셔 상이허락하여도라보내시고그집
을복호하엿더니 세종대왕이 태종명을받
저와길지의아들을버슬하이시고저는좌스간
을츄증하시다



金原桂爲泥城萬戶洪武丁丑倭賊寇宣州率兵赴
 援倭賊戰敗解圍去原桂乘勝逐之突入虜中遂爲
 賊所害諫官上言原桂素有驍勇之才提孤軍解重
 圍全城於幾陷追亡逐北突衝陷陳矢盡力窮竟以
 不振以一身之死易萬民之命其功烈烈死且不朽
 乞令攸司贈官且於本處立祠叙錄子孫獎勵忠魂
 教可

詩倭奴窺伺肆頑兇來寇宣城疾若風鐵甲將軍
 心膽壯解圍摧敵樹邊功 長驅遠鬪救危城臨
 難何曾愛此生義氣凜然忠貫日聖朝追贈重褒

旌

김원계는 본도사람이니 서로변장으로잇더
니 흥무영륙에 왜적이 선주를와티 거늘원계군
스를거느려 구원하니 왜병이 대패하여드라나
거늘원계이 괴물라적진등의 돌입하였다가도
적의게죽은배되니 더간이상소하여 곧오더원
계본디 효용흔지 죄잇더니 외로온군스를거느
러위티 흥성을보전하고 적진을충돌하다가살
이진하고힘이궁하여 마침내죽으나 흥몸으로
써만민의명을밭고니 그공이렬렬하여죽거도

장차석디아닐디라 청전대관작을투증하고그
곳의스당을세우고 조손을버슬하이어 통혼은
위로하여디이다하대 상이 좃치시니라

趙氏縊輿

徐氏罵死

李氏縊獄

雍氏同死

貞婦清風

梁氏被殺

明秀具棺

義婦臥冰

童氏皮面

王氏經死

朱氏懼辱

翠哥就烹

寧女貞節

彌妻偕逃

崔氏奮罵

烈婦入江

林氏斷足

金氏撲虎

金氏同窆

伯姬逮火

宋列國



伯姬魯宣公之女嫁於宋共公公卒嘗遇夜失火左
右曰夫人少避火伯姬曰婦人之義保傅不俱夜不
下堂待保傳來也保母至矣傳母未至也左右又曰
夫人少避火伯姬曰婦人之義傳母不至夜不可下
堂越義而生不如守義而死遂逮於火而死

詩宮中失火正熺熺煙燄連天半夜時左右縱言

宜少避夫人豈肯婦儀虧 共姬守禮任捐軀婦

道堅貞孰與儔聖筆特書賢節義聲名煥赫至今

雷

백희는노선공의 딸이 오송공공의 안희라공공

이죽은매일즉밤에집이불뚝트니좌위피항을

권흔대백희곧오디부인의도리는보취 부인마르
치고기르

은사
이라업스면밤의집에너리디아니하느니보취

오기롤기드리라이응하여보되너르니좌위소

피항을권흔대백희곧오디부외오디아니하여

시니가히집에너리디못홀다라의롤어그릇고

사는거손의롤디희여죽느니만못하다하고드

디여블에밋쳐죽으니라

王倫行實圖
女宗知禮
宋列國



女宗鮑蘇之妻蘇仕衛三年而娶外妻女宗養姑愈敬因往來者請問其夫賂遺外妻甚厚女宗媢謂曰可以去矣女宗曰何故媢曰夫人既有所好子何留乎女宗曰婦人一醮不改夫死不嫁執麻桌治絲蠶織紅組紉以供衣服澈漠酒醴羞饋食以事舅姑以專一爲貞以善從爲順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且婦人有七見去夫無一去義七去之道姤正爲首淫僻竊盜長舌驕侮無子惡病皆在其後吾媢不教以居室之禮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將安所用事姑愈謹宋公聞之表其閭號曰女宗

詩君子當年娶外妻恩情雖隔豈含悽養姑不懈
誠彌切千古芳名孰與齊 閨門嫉妬是常情賂
遺還能出至誠稱號女宗非溢美開陳婦禮甚分
明

녀종은송나라포소의안히라지아비위나라에
가삼년을버슬하녀다른처를취하니녀종이식
어미봉양하믈더욱공경하고그지아비게문안
홀제다른안히의게저물을후히보내니동세날
오더지아비이덕다른니를사랑하거늘그덕엇
디머므러잇는노녀종이곧오더겨집이흐번흔

인하매지아비죽어도절을긋치디아니하고질
삼하며음식을마초와식부모를섬기느니엇디
지아비사랑이전일티못하므로口음을긋치리
오칠거 안히내칠죄
날굽이라 지악에새음이웃듬이라날로
하여곰웃듬죄를범하라하느니다하고식이미섬
기기를더욱삼가하니송나라남군이듯고그집
을정문하고일홈하녀곧오더녀종이라하니라



齊莊公襲莒杞梁殖戰而死莊公歸遇其妻使使者
 弔之於路杞梁妻曰今殖有罪君何辱命焉若令殖
 免於罪則賤妾有先人之敝廬在下妾不得與郊弔
 於是莊公乃弔諸其室而去杞梁之妻無子內外皆
 無五屬之親既無所歸乃枕其夫之屍於城下而哭
 內誠動人道路過者莫不為之揮涕十日而城為之
 崩既葬曰吾何歸矣夫婦人必有所依者父在則依
 父夫在則依夫子在則依子今吾上則無父中則無
 夫下則無子內無所依以見吾誠外無所依以見吾
 節吾豈能更二哉亦死而已遂赴淄水而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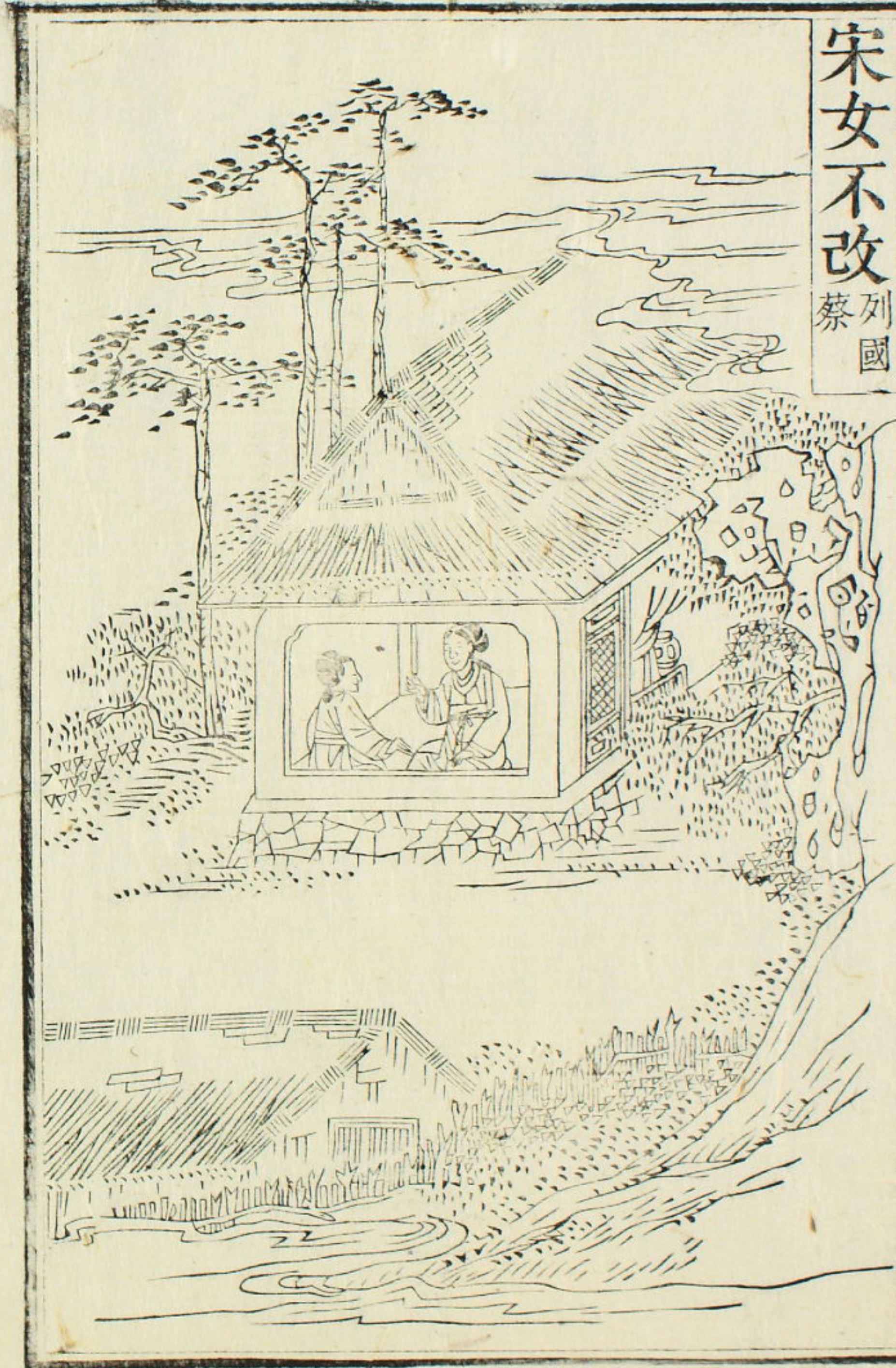
詩良人不返最堪哀
郊吊焉能偶受廻
城下枕屍終善哭
國人揮涕豈徒哉
依歸何所見
吾誠更二無心愛
此生遂赴淄流輕
一死至今嗚咽帶愁聲

제나라 장공이 게싸 흘릴시 기량식이 빠 화죽으
니 장공이 도라 오다가 길히셔 식의 처를 만나스
자로 하여 품도 상하니 식의 체 곧 오티 내지 아비
죄에 죽디 아니하여 실던대 내집이 이시니 엇디
들에서 도상을 바드리오 장공이 이에 그 집의 가
도상하고 가니라 식의 체 주식과 친척이 업스디

라 그지 아비 죽음을 성아래 누이고 슬피 우니 디
나는 사름이다 눈물을 썩리고 열흘을 우니 성이
절로 문허디 더라이의 영장하매 곧 오디겨 집이
반드시의 지 할곳이 잇느니 내우호로 부되 업고
가온대 로지 아비 업고 아래로 주식이 업는디 라
내정성과 절의를 빌디 업스니 또 호죽을 썩름이
라 하고 치슈_{물일흠이라} 의 싸져 죽으니라

宋女不改

列國蔡



蔡人妻宋人之女也既嫁而夫有惡疾其母將改嫁
 之女曰夫之不幸乃妾之不幸也奈何去之適人之
 道一與之醮終身不改不幸遇惡疾彼無大故又不
 遣妾何以得去終不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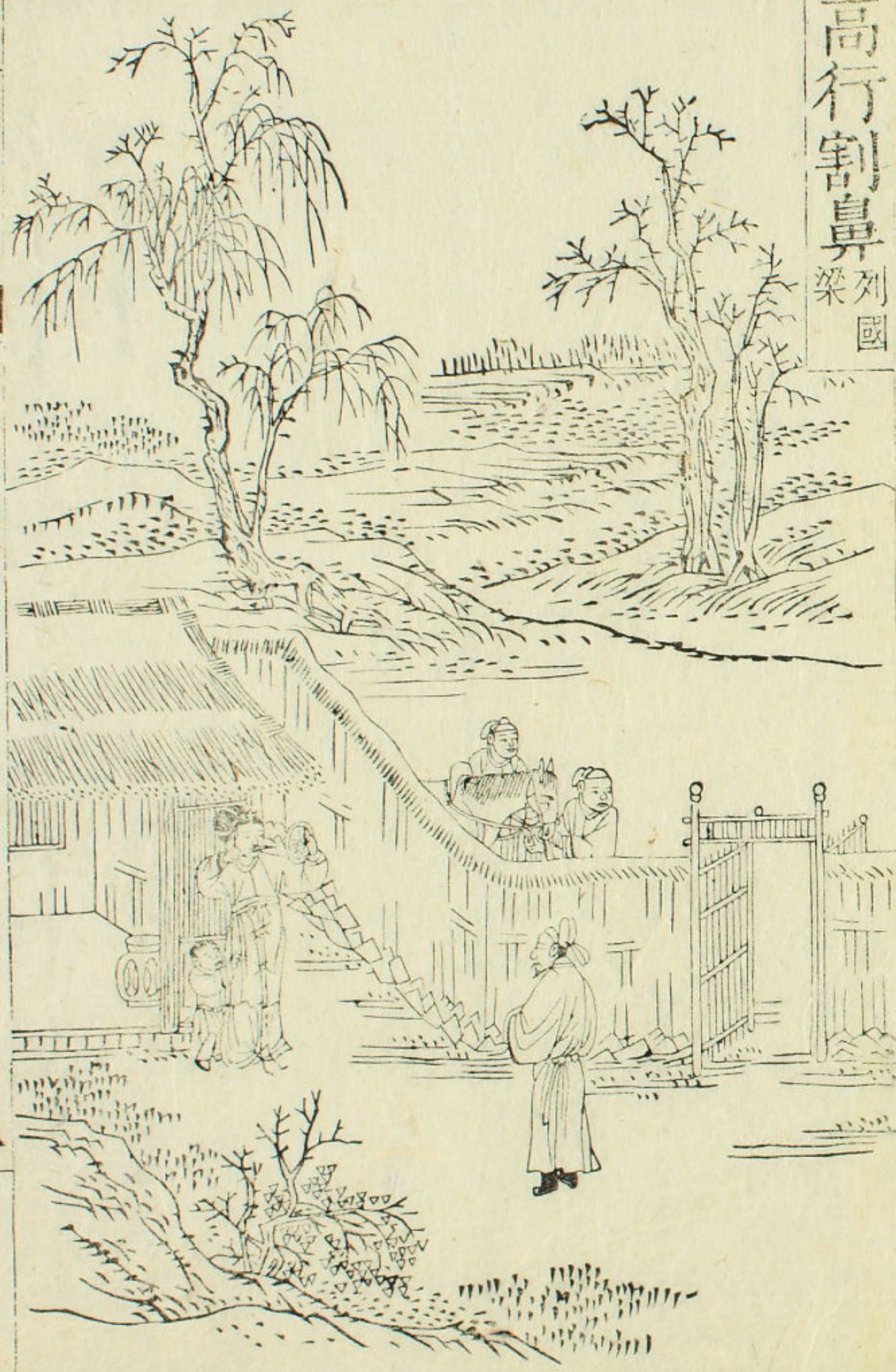
詩東楚綢繆夜向深三星燦燦彼蒼臨良人不幸
 今罹疾天只如何欲奪心 翻雲覆雨是人情况
 乃慈親計已成一醮獨能終不改青編萬古有高
 名

채나라사람의안히는송나라사람의딸이니지
 아비악질이잇거늘그어미리가함이려흔대송

네골오디지아비블행흥은나의블행흥미라겨
집이흔번셔방마즈매몸이맛도룩곳치디아니
흐느니블행흥여사오나온병을어더신들테큰
연피업고날을브리디아니흐거늘내엇디브리
리오흐고미참내듯디아니흐니라

高行割鼻

列國



高行梁之賢婦早寡不嫁梁貴人爭欲娶之不能得
梁王聞之使相聘焉高行曰妾聞婦人之義一往而
不改以全貞信之節忘死而趨生是不信也慕貴而
忘賤是不貞也棄義而從利無以爲人乃援鏡持刀
以割其鼻曰妾已刑矣所以不死者不忍幼弱之重
孤也王之求妾者以其色也今刑餘之人殆可釋矣
於是相以報王大其義高其行乃復其身尊其號曰
高行

詩貴人求娶謾紛爭千乘侯王聘未行自道婦人
貞信耳豈容忘死却趨生 持刀割鼻作刑餘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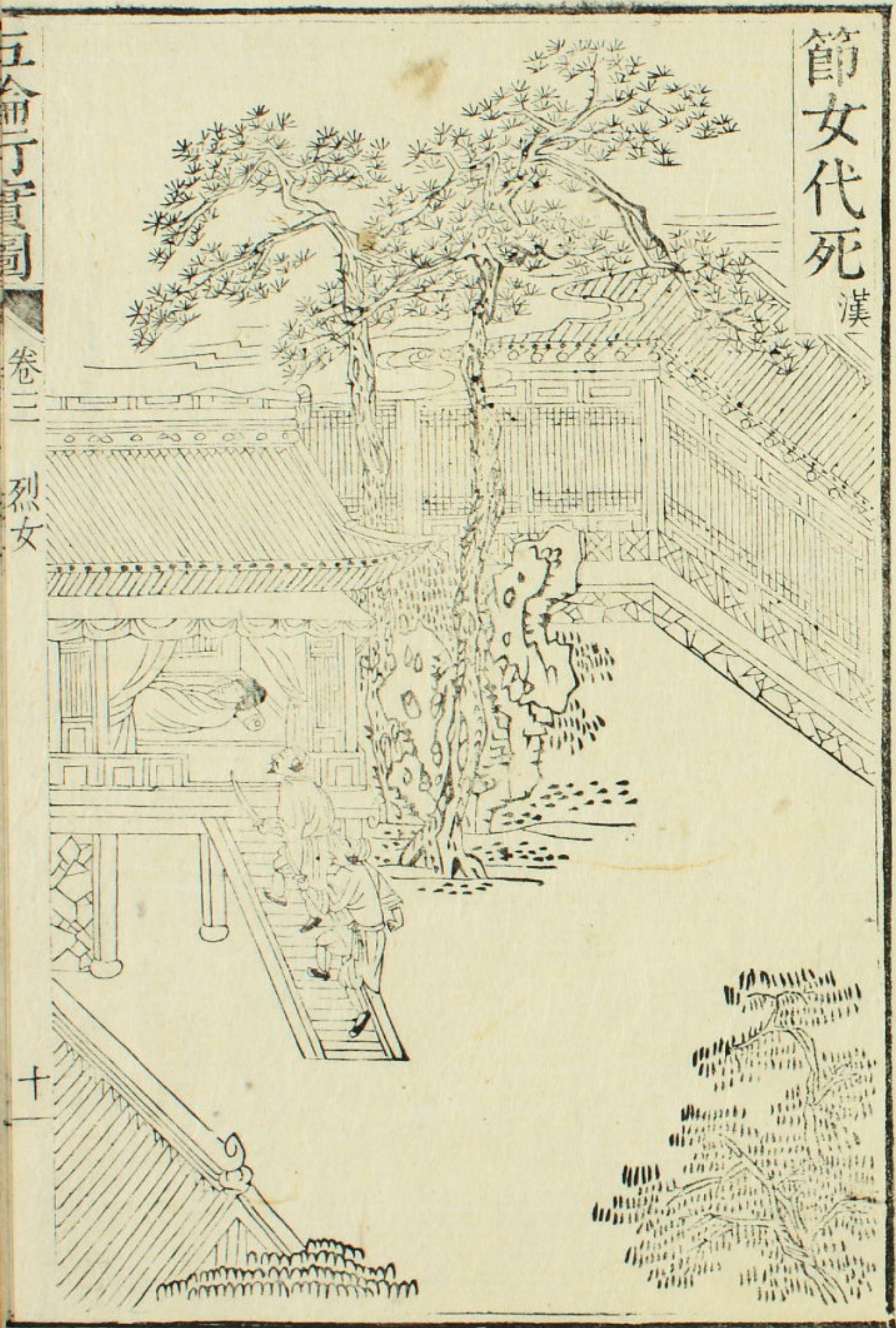
釋重孤可忍諸相以報來終自釋梁王錫號亦猗
歟

고행은 냥 나라 어딘 부인이니 일즉 홀로 되어 슈
절하 고잇더니 냥 나라 귀인들이 드와 취코져
하디 엇디 못하더니 님군이 그 고으믈 듯고 정승
으로 하여곰 빙페하대고 행이 곧 오디겨 집의도
리는 한번 서방 마즈 매곳치미 업느니 의를 버리
고 부귀를 살오문더 옥사름의 할배아니라 하고
갈로 그코를 버혀 곧 오디 님군이 날을 구하문그
식을 취하미라 이 제형벌은 사름이 되어 시니므

어시쓰리오내죽디아니함은어린자식을위함
미라함니냥왕이듯고그의물크게덕이며그행
실을돕히너겨복호앙고의민행앙이오면오디고행
이라함다

節女代死

漢



五倫行實圖
京師節女長安人其夫有仇人欲報其夫而無道聞其妻之仁孝有義乃劫其妻之父使要其女爲中譎父呼其女告之女念不聽則殺父不孝聽則殺夫不義不孝不義雖生不可以行於世欲以身當之乃且許諾曰朝日在樓上新沐東首臥則是矣妾請開戶待之還家乃告其夫使臥他所自沐居樓上東首開戶而臥夜半仇家果至斷頭持去明而視之乃其妻之頭也仇人痛之以爲有義遂釋不殺其夫

詩吾聞節女代夫牀能使仇家不敢傷計較兩端輕與重平生孝義一身當 中宵新沐獨含情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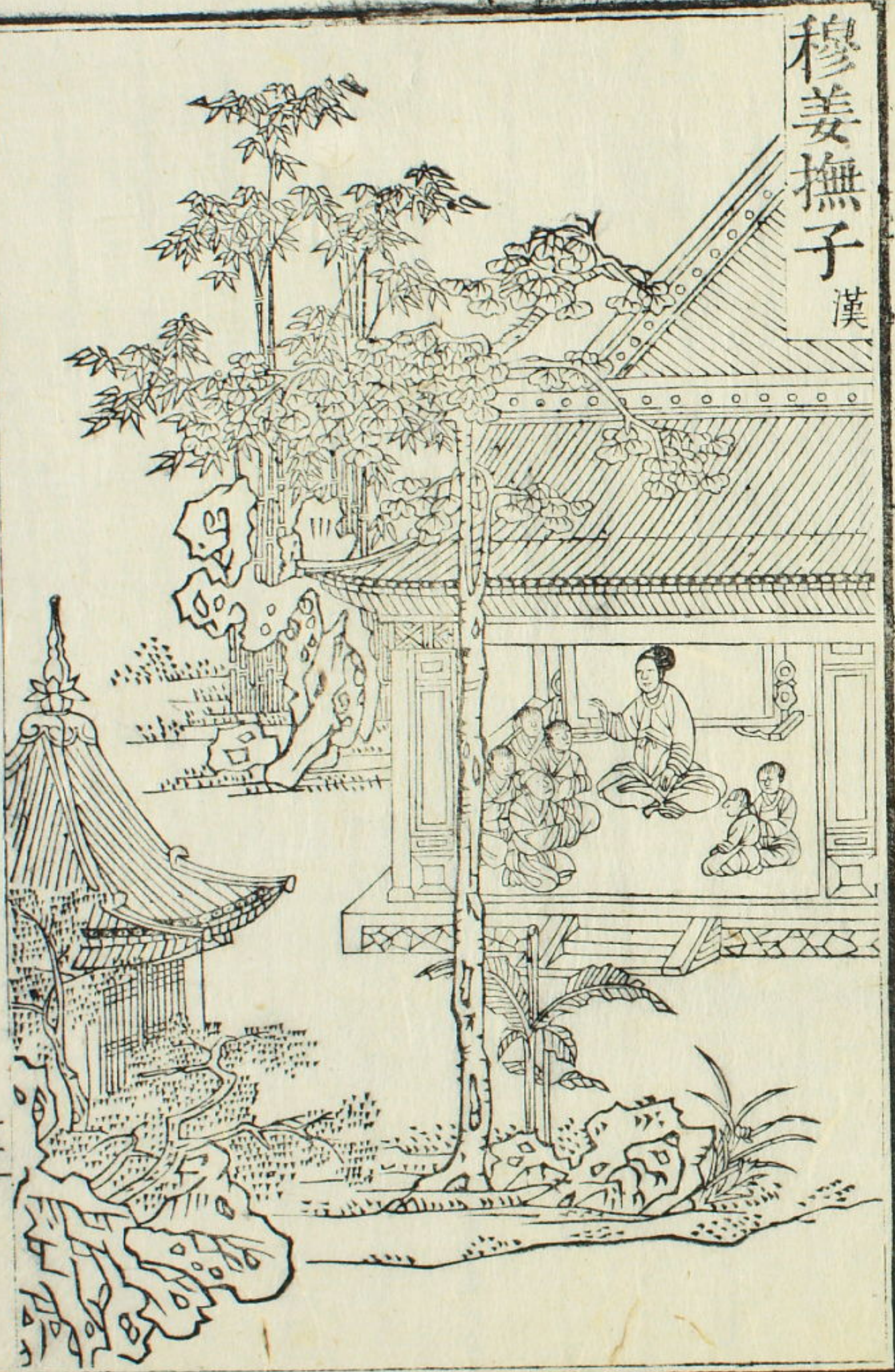
刃加身庶自明縱釋良人置生地畱芳青史樹風聲

절녀노한나라당안사람이니그지아비원슈잇
사람이이셔지아바를죽이고져하디길히업서
하더니절녀의호성이시물듯고절녀의아바를
협박하야그살드려닐러그지아바를죽이게하
라흐대그아비살드려니르니절녀아니듯고져
흐죽도적이아바를죽일거시오드른죽지아비
를죽일디라이에몸으로써당하려하야거죽허
락하야르오디니일아침의다락우히새로마리

감고동으로누엇는사름이내지아비니와셔죽
 이라내문을열고기드리라하고도라와지아
 비를권하야다른디누이고스스로지아비누엇
 던디누어시니밤이김흐매원슈사름이와마리
 를버혀갓다가보니절녀의마리라원슈사름이
 감동하여그지아비를죽이디아니하니라

穆姜撫子

漢



陳文矩妻字穆姜有二男而前妻四子文矩為安眾
令喪於官四子以母非所生憎毀日積而穆姜撫字
益隆衣食資供皆兼倍所生前妻子興遇疾困篤母
親調藥膳恩情篤密興疾瘳呼三弟謂曰繼母慈仁
吾兄弟不識恩養雖母道益隆我曹過惡深矣遂將
三弟詣南鄭獄陳母德狀已過乞就刑辟縣言之於
郡表異其母蠲除家徭遣散四子許以脩革自後訓
導愈明並為良士

詩移天已喪在惇惇撫育諸孤倍所生訓導愈明
隆母道終教悔悟有賢名 義子頑愚視若讎那

知慈母似鳴鳩終然悔過爭歸獄始信人心本不

渝

한적진문구의후처의조는목강이니아들들흥
나코전처의게아들네히잇더니문귀안등싸원
이되엇다가임소에서죽으니전처의네아들이
목강을제어미아니카하야혜방하며의위하
기날로심하되목강이사랑하기를더욱극진히하
여나흔조식에셔더하더라전처의뜻아들흥이
병드러거늘목강이친히약과음식을보살펴은
정이너욱갑흐니흥이병이나아세아오드러날

러 곧 오디 계되 우리 들 김히 사랑 하 시 거 늘 우리
은혜 들 모 로 고 섬 기 물 무 상 이 하 여 시 니 죄 악 이
만 도 다 하 고 세 아 으 들 두 리 고 고 올 옥 으 로 나 아
가 계 모 의 어 딴 덕 을 고 하 고 스 스 로 형 별 남 기 를
청 하 니 원 이 기 특 이 너 겨 그 어 미 를 표 장 하 고 집
을 복 호 하 였 터 니 그 후 에 목 강 이 여 러 아 들 을 마
르 쳐 다 어 딴 선 비 되 니 라

